

#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전문성 추구에 미치는 영향: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 The Effect of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n the Pursuit of Professionalism: Moderating Effects of Professor-Student Relationship Satisfaction

이수영 (Suyoung Lee)\*

남재우 (Jaewoo Nam)\*\*

### 초 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전문성 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두 변수 사이에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대 대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에게 있어 진로성숙도는 그 자체만으로 전문성추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진로성숙도와 전문성 추구 사이에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진로성숙도를 강화시켜 학생들의 전문성 추구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의 진로준비에 있어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진로지도와 원활한 의사소통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on the pursuit of professionalism in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r this purpose, 128 students in their twenties were surveyed and the influence of variables was verifi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the career maturity of the students majoring in literature and information science had little effect on the pursuit of professionalism. However, satisfaction with the professor-student relationship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cognition of students' pursuit of professionalism by enhancing career maturity. Therefore, in order to pursue professionalism in the preparation of the career path of the librarianship major, it is important that the professor's career guidance and smooth communication are important.

키워드: 문헌정보학 진로, 진로성숙도, 전문성추구, 교수-학생관계 만족도, 대학생 진로  
career maturity, pursuing professionalism, professor satisfaction,  
undergraduate career

\* 대림대학교 아동문헌정보과 조교수(sulibrary@daelim.ac.kr)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lisnam@kk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8년 5월 24일 ■ 최초심사일자: 2018년 6월 11일 ■ 게재확정일자: 2018년 6월 17일  
■ 정보관리학회지, 35(2), 167-186, 2018. [http://dx.doi.org/10.3743/KOSIM.2018.35.2.167]

## 1. 서론

대학생의 진로선택은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학생 시기는 학업을 이루며 자신에 대한 자각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삶의 방향을 탐색하는 실질적인 진로 결정의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직업과 진로를 찾기 위한 행동을 전개하고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고민은 취업으로 조사되었으며(연합뉴스, 2017), 이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16 사서취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헌정보학과 졸업자 취업률은 4년제 대학의 경우 2013년 64.0%에서 2014년 58.4%, 2015년 47.8%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전문대의 경우에도 2013년 69.4%에서 2014년 68.5%, 2015년 60.0%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한편 많은 대학에서는 취업캠프와 특강, 취업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 자격증강좌, 현장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결정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재호, 서유정, 이영민, 2015).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전문상담가를 통해 제공되며 일반적인 심리 상담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사서와 같이 전문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진로상담은 전공에 대한 지식과 도서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만을 통해서만 전공분야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지도교수와 면담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실제 학생들과의

면담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 교수와 전공분야 진로상담을 했던 학생들은 실제로 사서직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경향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면담을 하며 느꼈던 학생들의 진로준비 수준과 교수의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 등이 실제 직업선택에 있어 사서와 같은 전문직을 지향하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2개의 연구문제와 6개의 가설을 설정하였고, 학생들의 진로준비에 대한 진로성숙도와 전문성추구 인식을 내적요인으로, 여기에 작용하는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를 외적요인으로 설정하여 각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사서의 전문직 요건

국립국어원(2018)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전문직(專門職)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으로 풀이된다. 엄영애(2004)는 전문직의 특성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이 존재하며 전문지식을 통한 책임감 있는 봉사로 언급하였다. 또한 철저한 윤리강령과 자격제도를 통해 업무수행을 통제 받고 직종의 발전을 위해 협회를 구성하며 계속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발전한다고 하였다. 사서직은 이러한 전문직의 특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환(2003)은 국내 사서직이 도서관이

리는 배타적 직무영역과 문헌정보학이라는 지식기반, 사서자격증이라는 자격제도와 도서관 협회라는 멤버십 단체, 그리고 직업적 이타성을 규정한 도서관윤리선언까지 갖추고 있어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전문직이 되기 위한 외형적 요건은 거의 구비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사서의 자격요건은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 중 요건에 따라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로 구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사서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사서의 자격요건이 법에 명시되고 국가에서 자격증을 발급한다는 점 등에서 국가는 사서를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다양한 사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는 공공도서관 사서뿐만이 아니라 사립도서관, 대학도서관, 특수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모든 유형의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가 참여할 수 있다.<sup>1)</sup>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홈페이지에서는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할 사서 직원의 핵심 역량 개발’,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서 직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도서관 직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교육목표로 밝히고 있어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이렇듯 사회에서 전문직에 대한 인식은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전문직 군을 형성하고 법적인 자격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교육·훈련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구성원들이 사회적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다. 사서직은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2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에 대한 연구는 1940년대 미국 청소년의 직업흥미와 진로행동의 발달에 대해 연구한 Carter와 Strong 등의 학자에 의해 비롯되었다(이희영, 2003). 그 후 Super가 1955년에 직업성숙(vocational maturity)에 대한 개념을 소개한 이후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진로성숙(career maturity)에 대한 개념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진로성숙 개념이 보다 포괄적인 상위 개념으로 정착되었다(장석민, 1990).

Super(1955)는 진로성숙을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 이루어져야 할 직업적 과업을 수행하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고자 CDI(Career Development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또한 Crites(1973)는 Super의 이론을 토대로 진로성숙도에 대한 개념을 ‘진로선택의 과정에 나타나는 인지적·정의적 특성의 동일 연령층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정의하고 진로선택에 관한 태도와 의사결정 능력에 초점을 맞춰 CMI(Career Maturity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특히 Crites는 1978년 기존 CMI에

1) 「도서관법」(법률 제15167호)의 제19조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로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해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http://edu.nl.go.kr>>

25개의 추가 항목을 더하고 상담용(B-1)과 검사용(A-2) 두 가지 형태로 분화된 검사도구로 개량하였으며(Crites, 1978), 1995년에는 이를 다시 보완 하여 이용자에게 좀 더 친숙하고 성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CMI-R(Career Maturity Inventory - Revised)을 제시하였다(Crites & Savickas, 1996). 이후 2011년에 이르러 CMI는 Savickas와 Porfelli(2011)에 의해 다시 한 번 보완되어 CMI-Form C가 제시되었으며, 여기에는 관여성(concern), 호기심(curiosity), 확신성(confidence), 협의성(consultation) 등 4가지 세부항목을 통해 직업성숙에 관한 태도와 능력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장석민(1991)이 진로성숙의 개념에 대해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조정해 나아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으로 규정했으며, 각 발달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의 인지 및 수행여부가 다음 단계로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이행하는데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하였다. 국내에서도 진로성숙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데, 주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다. 변수들은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학업성적, 교사와의 관계 등 다양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이종원, 최은수, 2015; 정미나, 노지은, 2016).

### 3. 선행연구

문헌정보학분야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연

구들은 주로 취업에 대한 인식조사가 수행되어 왔다. 이종문(2009)은 문헌정보학과 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학생들은 자신이 사서직 외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50%이상의 응답자가 사서직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영희 등(2013)이 459명의 문헌정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자신이 다양한 사회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가장 진출하고 싶은 분야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조재인과 이지원(2016)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국가도서관 순으로 장래 진출분야를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은 대체로 사회의 다양한 직종 중에 전문성이 확보된 사서직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학문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직업 전문성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과 이에 작용하는 진로관련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전문직을 지향하는 타 학문 분야에서 많이 수행되어 왔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학분야에서는 고영지와 김인경(2011)이 전문직인식과 진로준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취업을 앞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측정하여 두 변인간의 상관성을 규명하였다. 비록 상관성은 약하게 나타났지만 학생들이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인식하면 진로준비 행동이 달라짐을

밝혀냈다. 또한 김명숙(2011)은 간호학과 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 사이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주미경과 신계영(2012)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간호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분석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일한 간호이미지와 전문직관을 갖추고 있음을 발견하고 간호학을 전공하는 남학생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구혜자와 이외선(2015)은 간호학과 학생이 갖고 있는 간호사이미지와 생명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 등 전문직의 기본 요건을 분석하여 이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연구하였다. 이밖에도 현혜순과 김윤영(2018)은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사이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상에서와 같이 간호학분야의 연구들은 간호전문직관과 관련해서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등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했고, 한편으로 간호사의 이미지와 전문성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한편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는 이홍직(2007)이 수행한 사회복지사의 직업전문성 인식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직 인식 수준과 수입, 사회적 영향력 등이 의사, 교사 등 타 전문직에 비해 낮고, 자격제도가 엄격하지 않으며, 전문단체의 조직화 수준도 미약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엄격한 자격제도를 갖추고 전

문단체의 개혁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인식과 처우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오운수, 정현태, 이성대(2014)가 수행한 연구가 있다. 그들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높은 업무량에 비해 낮은 보수와 처우, 전문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등 부정적 인식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직의 가치와 소명의식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사회복지학 분야에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며 대체로 전문직 인식과 처우가 낮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진로와 교육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한주빈, 양숙미, 오봉욱(2014)은 사회복지 현장실습 지도교수의 만족도가 진로확신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지도교수 만족도가 장차 사회복지사로서의 진로확신정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실습성고가 이들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과 지도교수의 관계는 진로준비에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강길현(2017)은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이 높아지며, 두 요인 간에는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조절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교육과 직업가치관 정립을 위한 윤리, 철학 등의 교육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간호학과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학생들의 전문직 인식과 진로준비가 서로 상관성이 있으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진로준비와 전문성인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4. 연구설계

### 4.1 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2개의 연구문제와 6개의 가설로 구성되었다. 먼저 [연구문제 1]은 진로성숙도가 전문성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진로성숙도는 자아 존중감, 자아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등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을 위한 다양한 심리적 변인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원, 최은수, 2015; 정미나, 노지은, 2016). 진로성숙도는 진로문제에 스스로 대처하는 준비정도이며, 이종문(2009)과 노영희 등(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전문성있는 사서직을 원하고 있으므로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전문성추구 인식 간에는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진로성숙도는 전문성추구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관여성은 전문성추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호기심은 전문성추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확산성은 전문성추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는 교수-학생관계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와 전문성추구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설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지도교수에 대한 만족도는 진로확신정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한주빈, 양숙미, 오봉욱, 2014),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 관계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현혜순, 김윤영, 2018).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가 학생들의 전문성추구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아래와 같이 〈가설4~6〉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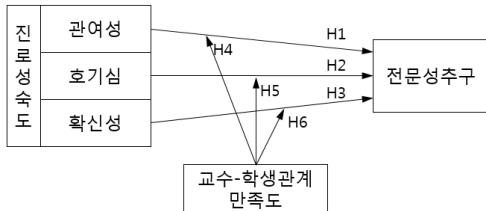
- [연구문제 2] 진로성숙도가 전문성추구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조절효과를 나타내는가?

〈가설 4〉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관여성과 전문성추구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5〉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호기심과 전문성추구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6〉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확산성과 전문성추구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문제와 가설을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 4.2.1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 척도는 Savickas와 Porfeli(2011)가 제시한 CMI-Form C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세부적으로 관여성(concern), 호기심(curiosity), 확신성(confidence), 협의성(consultation)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당 6문항을 배치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의 의미를 살펴보면, 관여성은 개인이 진로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호기심은 개인이 직업 세계를 탐구하고 직업적 요구 사항을 찾는 정도로 정의된다. 확신성은 개인이 현실적인 직업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하며, 협의성은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정보와 조언을 요청하여 도움을 구하는 정도를 일컫는다(Watson & Flamez, 2014). 이 척도는 진로성숙도가 낮은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가 불확실할 때 직업을 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와 같이 부정형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측정값을 역으로 변환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 4.2.2 전문성 추구

전문성추구는 김수정(2013)이 대학생의 직업가치 인식을 유형화하기 위해 개발한 측정도구에서 '전문성추구' 항목만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원래의 문항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구 목적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일이 좋다',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일이 좋다', '직업을 갖기 위해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도 전문직이 좋다'의 3문항만 추출하였다. 이들 문항은 문헌정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측정항목으로 판단되어 사용하였다.

### 4.2.3 교수-학생관계 만족도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김계현과 하혜숙(2000)이 사용한 전공만족도 척도에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 항목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지도와 관련된 3개의 문항만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원한다면 언제나 교수와 만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교수-학생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이다.

## 4.3 조사방법 및 절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충북 소재 A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A대학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지도교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학기당 2회 이상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조사 대상으

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 안내를 통해 교수와의 면담 경험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시행하였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웹 페이지로 안내하는 URL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총 5일간 조사를 진행하였고, 웹 설문도구의 오류방지 기능을 이용해 중복응답을 차단하였다. 설문지의 각 측정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측정 문항은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 4.4 통계분석

설문조사 후 수집된 데이터의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 24를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개념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alpha$ 를 사용하였다. 대상자들의 진로와 관련된 각 변인들의 상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사이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변수의 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1986)에 의해 제시된 3단계 조절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사회과학연구의 일반적 기준인  $p < .05$ 에서 검증하였다.

### 5. 분석결과

#### 5.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전문성 추구 인식과 이에 대한 영향 변인 분석

하기 위한 연구이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총 142명의 응답을 받았으며, 이중 결측값을 제거하고 최종 128개의 데이터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비(%)
연령	20대	128	100.0%
학년	1학년	46	35.9%
	2학년	30	23.4%
	3학년	28	21.9%
	4학년	24	18.8%
성별	남자	68	53.1%
	여자	60	46.9%
합계		128	100.0%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20대가 128명(100%)으로 조사되었으며, 1학년 학생이 46명(35.9%), 2학년 30명(23.4%), 3학년 28명(21.9%), 4학년 24명(18.8%)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53.1%)이 여학생(46.9%)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 5.2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변수간의 상관성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이 특정 개념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여 신뢰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협의성의 계수가 .378로 낮게 나타났으며, 부적합 문항을 삭제해도 사회과학에서 허용하는 일반적 기준이 0.6에 미치지 못해 통계분석을 위한 변수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 변수들의 신뢰

도 계수는 <표 2>에서와 같이 .614~.854로 나타나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진로성숙도 척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미 검증되었으므로 별도의 요인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표 2> 개념신뢰도

측정항목	변수구성	Cronbach's α	항목 수
직업가치	전문성추구	.808	3
진로성숙도	관여성	.614	3
	호기심	.771	6
	확신성	.827	6
	협의성	.378	6
학과만족도	교수-학생관계 만족도	.854	3

연구가설의 검증에 앞서 연구개념의 평균 분포를 기술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표 3>에서와

같이 전문성추구가 3.76점, 관여성 3.43점, 호기심 3.13점, 확신성 3.23점, 교수만족도 3.23점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평균 수준을 살펴보면, 전문성추구가 가장 높았으며 관여성, 교수-학생관계 만족도, 확신성, 호기심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관여성은 호기심( $r=.346$ ), 확신성( $r=.471$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호기심은 확신성( $r=.823$ ), 교수-학생관계 만족도( $r=.303$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신성은 교수-학생관계 만족도( $r=.232$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전문성추구는 관여성, 호기심, 확신성,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와, 관여성은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3>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문성추구	128	1.67	5.00	3.76	.694
관여성	128	2.33	5.00	3.43	.537
호기심	128	1.17	4.50	3.13	.742
확신성	128	1.67	5.00	3.23	.834
교수-학생관계 만족도	128	1.00	5.00	3.23	.908

<표 4> 변수간의 상관성 분석

	전문성추구	관여성	호기심	확신성	교수-학생관계 만족도
전문성추구	1				
관여성	-.062	1			
호기심	.005	.346**	1		
확신성	.126	.471**	.823**	1	
교수-학생관계 만족도	.115	-.068	.303**	.232**	1

\* $p<.05$ , \*\* $p<.01$

### 5.3 연구가설 검증

#### 5.3.1 진로성숙도가 전문성 추구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은 진로성숙도가 전문성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진로성숙도의 각 변인인 관여성, 호기심, 확신성과 교수-학생관계 만족도가 전문성 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표 5>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3.062, p<.05$ ), 분산팽창지수(VIF)는 모두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1~3>의 검증을 위해 각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우선 관여성은 전문성추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관여성이 전문성추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호기심( $\beta=-.328, p<.05$ )은 전문성 추구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직업 세계를 탐구하고 직업적 요구 사항을 찾아보는 호기심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있어 전문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호기심이 전문성추구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확신성( $\beta=.477, p<.01$ )은 전문성추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개인이 현실적인 직업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인 확신성이 높을수록 전문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확신성이 전문성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가설 1~3>을 요약하면,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전문성 추구에 있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확신성에서만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호기심은 전문성 추구하고 반대되는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므로 결국 연구목적과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그 자체만으로 전문성 추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문제 2]에서는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라는 변수를 투입하고, 이 변수가 진로성숙도의 영향력을 변화시켜 전문성추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 5.3.2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2]에서는 진로성숙도와 전문성추

<표 5> 진로성숙도가 전문성추구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beta$	t	p	VIF
전문성 추구	(상수)	4.205	.416		10.119	.000	
	관여성	-.224	.127	-.173	-1.759	.081	1.295
	호기심	-.306	.143	-.328	-2.139	.034*	3.124
	확신성	.397	.136	.477	2.927	.004**	3.535

$R^2 = .069, F = 3.062, p = .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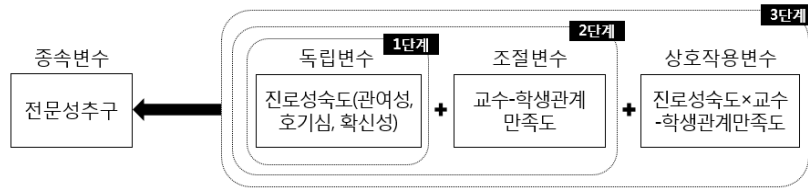
\* $p<.05$ , \*\* $p<.01$  (two-tailed test)

구 사이에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2>에서와 같이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위계적 방법에 의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진로성숙도의 각 구성요소(관여성, 호기심, 확신성)를 회귀식에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를 추가하였으며(독립변수+조절변수),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계산된 상호작용변수를 회귀식에 투입하였다(독립변수+조절변수+상호작용변수).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는 각

단계별 설명력의 증감을 통해 검증되며 최종단계의 설명력( $R^2$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노경섭, 2014). <표 6>은 상기의 절차에 따라 각 독립변수들의 위계적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관여성과 전문성추구의 영향관계에서는 모형1( $f(1, 126) = .486, p > .05, R^2 = -.004$ )에서 모형2( $f(1, 125) = 1.562, p > .05, R^2 = .000$ ), 모형3( $f(1, 124) = 19.970, p < .001, R^2 = .132$ )으로 진행되며 설명력( $R^2$ )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모형3의 상호작용변수의 투입에서도 설명



<그림 2>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분석과정

<표 6> 진로성숙도가 전문성추구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독립 변수	모형	$R^2$	adj $R^2$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2$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관여성	1	.004	-.004	.004	.486	1	126	.487	2.050
	2	.016	.000	.012	1.562	1	125	.214	
	3	.153	.132	.136	19.970	1	124	.000***	
호기심	1	.000	-.008	.000	.003	1	126	.955	2.045
	2	.014	-.002	.014	1.793	1	125	.183	
	3	.056	.033	.042	5.465	1	124	.021*	
확신성	1	.016	.008	.016	2.017	1	126	.158	2.047
	2	.024	.008	.008	.995	1	125	.320	
	3	.076	.054	.053	7.080	1	124	.009**	

종속변수: 전문성추구 \* $p < .05$ , \*\* $p < .01$ , \*\*\* $p < .001$

명력이 향상되었으며,  $F$ 변화량( $p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관여성과 전문성추구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로 인해 관여성이 전문성추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되었으므로 <가설 4>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관여성과 전문성추구 사이에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를 해석하면,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의 관여성 수준과 전문성추구 인식은 서로 인과성이 없지만, 교수-학생관계 만족도가 관여성을 강화시켜 학생 스스로가 전문성이 있는 직업으로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호기심과 전문성 추구의 영향관계에서는 모형1( $f(1, 126) = .003, p > .05, R^2 = -.008$ ) → 모형2( $f(1, 125) = 1.793, p > .05, R^2 = -.002$ ) → 모형3( $f(1, 124) = 5.465, p < .05, R^2 = .033$ )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설명력( $R^2$ )이 강화되고 있으며 모형3의  $F$ 변화량( $p = .021$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로 인해 호기심의 전문성추구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었으므로 <가설 5>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호기심과 전문성추구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이 갖고 있는 직업과 진로에 대한 호기심은 전문성추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교수-학생관계 만족도가 전문직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호기심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전문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확신성과 전문성 추구의 영향관계에서는 모형1( $f(1, 126) = 2.017, p > .05, R^2 = .008$ ) → 모형2( $f(1, 125) = .995, p > .05, R^2 = .008$ ) → 모

형3( $f(1, 124) = 7.080, p < .01, R^2 = .054$ )으로 진행되며 설명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모형3의  $F$ 변화량( $p = .009$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확신성의 전문성추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주는 요인이므로 <가설 6>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확신성과 전문성추구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선택에 대한 자기 확신은 전문직을 추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를 통해 스스로 전문직을 선택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연구문제 1]에서는 관여성, 호기심, 확신성 등 진로성숙도는 그 자체로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전문성추구 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연구문제 2]에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가 진로성숙도를 강화시켜 전문성을 추구하도록 조절하고 있었다. 특히 관여성, 호기심, 확신성 등 각 항목의 2단계에서 투입된 조절변수(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종속변수인 전문성추구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3단계의 상호작용변수를 통해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므로 이는 순수조절변수(pure moderator)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순수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이므로, 본 연구에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진로성숙도와 전문성추구 사이를 조절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 5.4 분석결과 논의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의 진로성

숙도와 전문성추구,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진로문제에 스스로 대처하는 준비정도인 진로성숙도에 따른 학생들의 전문직 추구 성향을 알아보았고, 그 사이에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집중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그 자체는 전문성추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교수-학생관계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의 영향력을 변화시켜 전문성추구 인식이 강해지도록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전문성추구 인식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교수의 역할은 조절변수로 사용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측정문항인 '원한다면 언제나 교수와 만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교수-학생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를 통해 제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한다면 언제나 교수와 만날 수 있다' 문항과 관련해서 교수는 학생들의 면담요청 시 적극적으로 응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 또는 개인적인 생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교수의 도움을 얻고자 면담을 요청할 것이다. 신재철(2002)은 교수의 역할인 교육에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진로지도 활동을 포함시키고, 교수는 학생의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여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남기(2006)는 대학들은 학생지도 활동을 독립된 하나의 역할로 구분하고, 교수가 학생지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

여 학생지도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교육자인 교수는 학생과의 면담을 교수의 필수 역할로 인식하고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Pascarella와 Terenzini(1991)는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해서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그 효과가 증대된다고 하였다.

둘째,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문항과 관련된 제언이다. 학과차원에서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로상담의 경우 상담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고 대부분의 경우 전공학습관리, 취업진로지도, 직업가이드 등에 관한 역할로 집약된다(이종구, 2007). 그렇기 때문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도서관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문헌정보학 관련 진로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도서관 유형 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련 법제가 개정되기도 하며 사회분위기에 따른 부침이 거듭되기도 한다. 따라서 진로를 지도하는 교수는 이와 같은 변화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며 이에 맞는 진로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학술지와 도서관메일링리스트 등의 매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현장사서나 관련업체 종사자를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취업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나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도서관 분야의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진로지도에는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 등 학업상담, 도서관 관련 및 일반 기업에 대한 취업, 개인사업을 위한 창업 등 다양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학교 취업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해 놓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수-학생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문항과 관련해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소통보다 경청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 교수의 역할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논의되었다. 교수-학생의 긍정적 관계는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며(최석봉, 임명서, 2012; 김성덕, 이용국, 2014; 송윤정, 조교관, 2016; 현혜순, 김윤영, 2018), 교수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업적응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희, 라만교, 권재환, 2014). 또한 교수와의 상호작용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나태균, 문성원, 2012), 교수의 정보적 지지가 학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한주원, 2013).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수의 사회적지지' 등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와 맥락적으로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원활한 소통이 전제가 된다.

진로지도는 학생들의 적성이나 성격, 성향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개입될 수 있으며, 실습, 수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학생의 개인적 특성이나 진로지도 형태를 반영하여 좀 더 심도 깊은 연구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 간호학 등 전문직을 추구하는 타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여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일반적인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차이점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6. 결론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전문성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전문성추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관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관여성은 전문성추구와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었으며, 직업적 요구사항을 탐색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호기심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만, 개인이 현실적인 직업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인 확신성만 전문성추구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그 자체만으로 전문성추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진로성숙도와 전문성추구 사이에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위계적 방법에 의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진로성숙도의 구성요소인 관여성, 호기심, 확신성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전문성추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진로성숙도와 전문성추구의 관계를 조정하는 순수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 전공 학생들의 진로 준비에 있어 교수와의 면담, 진로지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등의 만족요인은 학생들이 전문성을 추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연구문제를 증명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모집단을 한 개 학교의 학생들로만 구성하여 객관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지역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 학생의 성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단을 다양하게 구성했으면 좀 더 객관적인 결과가 제시되었을 것이다. 또한 연구에서 측정된 전문성추구 인식은 사서만을 특정 짓고 있지 않고 있다. 물론 문

헌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사서를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집단을 사서를 희망하는 학생들로만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했으면 좀 더 정확한 연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같은 요인을 고려하고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추가하여 보다 면밀하게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길현 (2017).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 영향요인 분석- 광주, 전남·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5(4), 65-87. <http://dx.doi.org/10.31324/JRS.2017.12.25.4.65>
- 고영지, 김인경 (2011).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1), 62-71.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1.062>
- 구혜자, 이외선 (2015). 간호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11), 7356-7366.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1.7356>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서관법.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Retrieved from [stdweb2.korean.go.kr](http://stdweb2.korean.go.kr)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Retrieved from <http://edu.nl.go.kr>
- 김경희, 라만교, 권재환 (2014). 대학생이 지각한 교수의 지지, 학습동기 및 학업적응의 관계모형 검증. *아시아교육연구*, 15(1), 45-69. <http://dx.doi.org/10.15753/aje.2014.15.1.003003>
- 김계현, 하혜숙 (2000). 대학생의 학과(學科)(학부(學部))만족(滿足)의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1), 7-20.
- 김명숙 (2011).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2), 159-167.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2.159>
- 김성덕, 이용국 (2014). 체육계열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대학구성원 상호작용이 전공만족 및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2(4), 341-352. <http://dx.doi.org/10.15703/kjc.12.2.201104.673>
- 김수정 (2013). 대학생의 직업가치 유형화 연구. *진로교육연구*, 26(1), 93-117.

- 나태균, 문성원 (2012). 외식조리 전공자가 인지한 교수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분석: 충청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18(2), 106-117.
- 노경섭 (2014).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 & AMOS 21. 서울: 한빛미디어.
- 노영희, 안인자, 이종문, 오세훈 (2013).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의 취업전망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143-167.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4.143>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6 사서취업실태조사 결과. Retrieved from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5666](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5666)
- 박남기 (2006). 교수의 역할과 자질. *大學教育*, 140(4), 44-49.
- 송윤정, 조규관 (2016). 대학생의 내재적 전공선택동기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4(4), 61-77.
- 신재철 (2002). 대학교수의 역할과 자질. *大學教育*, 117(8), 54-52.
- 엄영애 (2004). 사서직의 전문직 요건과 수행업무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159-175. <https://doi.org/10.4275/kslis.2004.38.3.159>
- 연합뉴스 (2017. 12. 17). 대학생 10명 중 6명 “학업 아니라 취업이 지상과제.” Retrieved fro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3/0200000000AKR20171213075200004.HTML>
- 오운수, 정현태, 이성대 (2014).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인식유형.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9), 285-297.
- 이제환 (2003). 전문직 이론을 통해 본 사서직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57-87. <http://dx.doi.org/10.4275/KSLIS.2003.37.2.057>
- 이종구 (2007). 진로상담교수제가 재학생들의 학습, 취업역량과 경력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K대학교 진로상담교수제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0(3), 1383-1411.
- 이종문 (2009).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선호 직업 및 준비성 실태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73-490.
- 이종원, 최은수 (2015).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진로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Andragogy Today*, 18(1), 33-54.
- 이흥직 (2007).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인식 연구. *사회과학연구*, 23(3), 151-172.
- 이희영 (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 장석민 (1990). 진로성숙도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장석민 (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정미나, 노지은 (2016). 청소년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3), 133-162.
- 정재호, 서유정, 이영민 (2015). 대학취업지원 역량 강화 연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재인, 이지원 (2016).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직장으로서의 도서관·정보센터 이미지 분석. *한국문헌정*

- 보학회지, 50(3), 113-132.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3.265>
- 주미경, 신계영 (2012). 3년제 간호학 전공 남학생과 여학생이 지각한 간호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한국 간호교육학회지, 18(3), 510-521.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3.510>
- 최석봉, 임명서 (2012). 대학생의 학업만족과 학습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셀프리더십과 교수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뢰를 중심으로. 고객만족경영연구, 14(3), 65-84.
- 한주빈, 양숙미, 오봉욱 (2014).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진로확신정도에 지도교수가 미치는 영향: 실습 성과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5(2), 183-205.  
<http://dx.doi.org/10.16881/jss.2014.04.25.2.183>
- 한주원 (2013).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비서·사무경영연구, 22(2), 117-140.
- 현혜순, 김윤영 (2018).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조절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4(1), 29-3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Crites, J. O. (1973).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Monterey, CA: Mc Graw Hill.
- Crites, J. O. (1978).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2nd ed.). Monterey, CA: CTB/McGraw-Hill.
- Crites, J. O., & Savickas, M. L. (1996). Revision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131-138. <https://doi.org/10.1177/106907279600400202>
- Pascarella, E. T., & Terenzini, P. T. (1991).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Findings and insights from twenty years of research*. Sanfrancisco: Jossey-Bass.
- Savickas, M. L., & Porfeli, E. J. (2011). Revision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 adaptability for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4), 355-374. <https://doi.org/10.1177/1069072711409342>
- Super, D. E. (1955).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Watson, J. C., & Flamez, Brande (2014) *Counseling assessment and evaluation: Fundamentals of applied practice*.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Cho, Jane, & Lee, Ji-Won (2016). Study about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s image of library

- and information science students as workpla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3), 113-132.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3.265>
- Choi, Suk-Bong, & Lim, Myung-Suh (2012).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satisfaction and outcome of learning: Focused on self-Leadership and the cognitive and affective faculty trust of undergraduate student. *Academy of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14(3), 65-84.
- Gu, Hye-Ja, & Lee, Oi-Sun (2015). The correlation between nurse's image, bio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356-7366.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1.7356>
- Han, Ju-Bin, Yang, Sook-Mee, & Oh, Bong-Yook (2014). The effect of professor satisfaction on career certainty majoring: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practicum outcome. *Journal of Social Science*, 25(2), 183-205. <http://dx.doi.org/10.16881/jss.2014.04.25.2.183>
- Han, Ju-Won (2013). Social support and career identity influ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22(2), 117-140.
- Hyun, Hye-Sun, & Kim, Yun-Young (2018). Moderating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4(1), 29-38.
- Jang, Suk-Min (1990). Basic research for development of career maturity test too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Jang, Suk-Min (1991). Study on standardization of career maturity tes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Jeong, Jae-ho, Seo, Yu-Jeong, & Lee, Yeong-Min (2015). Research into the current state of university career centers in Korea.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Joo, Mee-Kyoung, & Shin, Gye-Young (2012). Nursing image and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in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3), 510-521.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3.510>
- Jung, Mi-Na, & Roh, Jae-Un (2016).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with adolescents' career maturity. *Studies on Korean Youth*, 27(3), 133-162.
- Kang, Gil-hyeon (2017). Analysis factors on job identity as a specialist among social work department in collage: Focused on Gwangju, Jeonnam, and Jeonbuk Regions. *Journal of*

- Regional Studies, 25(4), 65-87. <http://dx.doi.org/10.31324/JRS.2017.12.25.4.65>
- Kim, Kay-Hyon, & Ha, Hye-Suk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Kim, Kyung-hee, Na, Man-gyo, & Kwon, Jae-hwan (2014). Verification of a relational model among professor's support, learning motivation, and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5(1), 45-69. <http://dx.doi.org/10.15753/aje.2014.15.1.003003>
- Kim, Myoung-Sook (2011).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2), 159-167.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2.159>
- Kim, Soo-Jeong (2013). The study of vocational value subtype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1), 93-117.
- Kim, Sung-Duck, & Lee, Yong-Kuk (2014). The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nd university member interaction of major satisfaction and sports related majoring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The Korea Journal of Sport*, 12(4), 341-352. <http://dx.doi.org/10.15703/kjc.12.2.201104.673>
- Ko, Young-Ji, & Kim, In-Kyung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62-71.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1.062>
- Lee, Hong-Jik (2007). A study on th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the social worker as a profession in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3(3), 151-172.
- Lee, Hui-Yeong (2003). *Career maturity and counseling*. Seoul: Hagjisa.
- Lee, Jae-Hwan (2003). Is the librarianship in Korea a profession?.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2), 57-87. <http://dx.doi.org/10.4275/KSLIS.2003.37.2.057>
- Lee, Jong-Gu (2007). A Study on the effect that career counseling system of professor influence to the learning, employment competency and career develop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Focusing on the career counseling system of professor of K university.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3), 1383-1411.
- Lee, Jong-Moon (2009). An analysis on preferred occupation and its readiness to students in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73-490.

- Lee, Jung-Won, & Choi, Eun-Su (2015). Self-leadership, social support, career motivati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variables. *Andragogy Today*, 18(1), 33-54.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8). 2016 Librarian employment status survey results. Retrieved from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5666](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5666)
- Na, Tae-Kyun, & Moon, Sung-Won.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of professo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oodservice and culinary art majors: Focus on the university in Chungcheong province.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18(2), 106-117.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Retrieved from [stdweb2.korean.go.kr](http://stdweb2.korean.go.kr)
-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Library law.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
- National Library of Korea. Librarian training. Retrieved from <http://edu.nl.go.kr>
- Noh, Kyung-Sup (2014). *Statistical analysis of the thesis: SPSS & AMOS 21*. Seoul: Hanbit Media.
- Noh, Young-Hee, Ahn, In-Ja, Lee, Jong-Moon, & Oh, Se-Hoon (2013). LIS employment prospects: LIS students'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4), 143-167.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4.143>
- Oh, Yun-Sou, Jung, Hyun-Tae, & Lee, Seong-Dae (2014). Analysis of cognition pattern of a college student's occupational view on social welfare posi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9), 285-297.
- Park, Nam-Ki (2006). Professor's role and qualifications. *Higher Education*, 140(4), 44-49.
- Sin, Jae-Chul (2002). Professor's role and qualifications. *Higher Education*, 117(8), 54-52.
- Song, Yun-Jeong, & Cho, Gyu-Pan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Korean Education Inquiry*, 34(4), 61-77.
- Um, Young-Ai (2004). A study on the librarians' professional criteria and wo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3), 159-175. <https://doi.org/10.4275/kslis.2004.38.3.159>
- Yonhap news (2017. Dec. 17). 6 out of 10 college students "not working but working." Retrieved fro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3/0200000000AKR20171213075200004.HTML>